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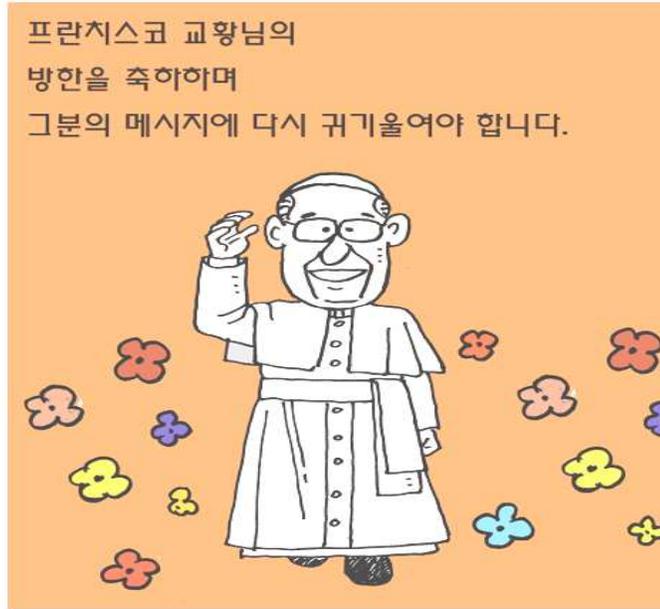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Fax (510) 639-4842

thmschae@yahoo.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흔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56, 1.6-7
 [화답송] 시편67(66), 2-3.5.6과8(◎4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레들을 이끄시니, 거레들이 기뻐하고 환호 하리이다.◎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로마11, 13-15, 29-32

[복음 환호송] 마태4, 23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음] 마태15, 21-28

성가	8시 미사	입당 29(2, 3절)	봉헌 511 512	성체 172 161	파견 455
	11시 미사	입당 29(2, 3절)	봉헌 511 512	성체 172 161	파견 45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0주일(8월 17일)		연중 제21주일(8월 24일)		연중 제22주일(8월 3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김말가리다(미숙)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정스텔라(애리)	황데레사(혜정)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최베네딕토(환준)	김길베르토(광호)	정프란치스코(일환)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손리디아(정옥)	최베네딕다(수영)	전베로니카(진영)	정글라라(영희)	문골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말씀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마태 14, 27)

오늘 복음의 장소는 티로와 시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부인을 만나십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으나 예수님의 소문은 이곳까지 널리 퍼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방의 여인까지도 찾아옵니다.

농사를 짓는 곳에서 사목 생활을 하다 보니, 논바닥이 갈라지고 발작물이 타들어 갈 뿐만 아니라 식수도 단수되어 목말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신자들은 물론 동네 모든 사람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께 마귀가 호되게 들려있는 딸을 고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래 내가 고쳐주마.” 라고 하시지 않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고통이기에 엉뚱하게도 간절함이 없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가나안 부인의 딸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수도도 다 겪을 각오로 온 여인이 여기에서 조용히 “예!” 하고 물러갈 리가 없습니다.

김준태 요셉 신부
인천교구 내가 본당 주임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께 다시 한 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이제는 이런 여인이 가여워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 모진 말씀으로 뜻을 박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부인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결국 예수님도 여인에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오늘 복음에서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진하게 묻어나옵니다. 간절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은 모든 사람은 얻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 고통입니다. 또한, 채워지지 않았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신자 대부분이

생명의 말씀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인등록증을 비롯하여 온갖 신분증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회원증은 그 신분에게 출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곳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권리와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벽과 선들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요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 앞에 그리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원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는, 상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름 없는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기꺼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마태15,23)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인간사 안에서 그리 욕먹을 것 같지 않은만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둔 어머니로서, 가난한 여인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는지 사람들의 구박도, 무너지는 자존심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강아지 취급받는 이야기조차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뿐임을 드러냅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과 선인, 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등 사람들이 그어 놓은 선들은 그 여인 앞에 아무런 벽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또 믿고, 또 믿을 뿐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완성은 인간적 모욕을 견디어 내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어 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만! 더는 못 참아!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랑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멈춰지고 믿음의 길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험겨워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내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 부수어지는 내 자존심에 대한 아픔 때문인 것은 아닐런지요.

더 이상은 부서지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응답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주저앉아 버린 것은 아닌지요.

내 처지가 어떠한데 예수님께 큰소리로 ‘소리 질러’ (마태

15,22 참조) 기도해야 하는데, 이미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처지에 발목잡혀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내가 기도를 멈추고 사랑을 멈추고 있다면, 그 이유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디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 다 버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태 15,25)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귀석 신부
명일동성당 주임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손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한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다.
하지만 오늘 우리 발로
사람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

글_성녀 테레사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하느님은 내 편 아니다, 내가 하느님 편이어야지

호전적인 나라를 이웃하고, 무자비한 복해를 이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배려한 교황님의 방한과 8.15 광복기념일, 겹경사의 8월입니다.

이 짧은 삼복염천에 교황님의 방한이 우리 온 국민에게 제 2의 광복 기회가 되도록 기도 드리려는데, 손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몇 년간 못 본 사이에 아기 티를 벗고 어린이로 자란 손자 손녀가 티격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두고 다투다가 무슨 말끝인지 “할머니가 축구 보라고 했어.” 라는 손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닌 내 편이야.” 라는 손녀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어서 “아양~” 울음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갔더니 “할머니야~! 내 편이지?” 하고 울며 달려옵니다. “그래그래, 네 편이지. 네가 잘못할 때만 빼고는 언제나 네 편이지.” 라며 이렇게 두 아이를 달랠던 일입니다.

“그래, 하느님도 내가 잘못할 때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니시지. 오히려 내가 늘 하느님 편이어야 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감겼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분명 내 입에서 나왔던 내 말인데, 하느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하느님이 늘 내 편인 줄 믿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느님이 내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아니시랍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내 편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항상 옳으시니까요.

운동경기를 구경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어느 팀을 편드실지 참 곤란하시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늘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팀을 편드시지, 술수를 쓰거나 이기게 해달라고 생떼 쓰는 팀을 편들지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면, 하느님은 괴로우실 리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약자라서 불의한 이웃 나라에 36년이나 착취당했던 우리나라를 교황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약자였기에 선교사없이 자란 가톨릭이었고, 개신교의 첫선교사들도 이미 한글로 번역된 「마가(마르코)복음서」를 들고 왔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이기에 교황님의 이번

방한은, 가톨릭과 개신교 구별 없이 모두에게 특별 은총이 된다는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고 들어서 더 행복합니다.

124위 순교 선조(先祖)의 시복만이 아니라, 교황님의 꽃동네 방문도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말입니다. 그 바쁘신 일정에도 무의탁 행려인들의 집 꽃동네 방문은 프란치스코 스타일 그대로 아닌가요.

항상 정의롭고 약자 편이신 교황님의 행보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온 국민에게 잊힐 수 없는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편애하셨다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최근 묵상 중에 문득 바뀌었습니다.

이들 세 제자야말로 강도 높은 훈련이 가장 필요했던 학습 부진아들이었기에, 주님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더 훈련하신 것이지 편애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교황님도 당신의 위로와 격려가 가장 절실한 꽃동네 식구들을 더 배려하신 것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 자꾸만 벌어 내는 최약자들을 위한 교황님의 행보를 묵상하다가 얻은 놀라운 수확입니다.

유안진 글라라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가톨릭전례

주님의 기도-전적으로 새로운 기도

1) 주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루카 #11:1). 이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과 교회에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맡기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59항).

제자들은 이미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시간을 지켰고,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고, 시편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도문 하나를 추가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기도, 자연적인 종교성에서 비롯된 기도와 구별되는 크리스찬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가장 뛰어난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성무일도의 주요 시간경들과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776항).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의 시작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높으신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높으신 하느님, 즉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것과 아버지에게 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의 기도는 인간들이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기도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 14~15).

3) 올바른 청원의 기도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청원의 기도입니다. 청원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 안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청원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청하여라”로 압축될 수 있고, 그로써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 줍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서까지도 형성시켜 준다(토마스 아퀴나스).

4) 세상을 향한 기도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는 이런 현실 도피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려움 안으로 투신하기를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악이 범람하는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굶주리는 백성, 죄에 억눌린 백성, 악에 떨어지는 백성들 앞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전적인 새로움입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8월 17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양사도요한(재균)
	연	황빈센트(익주)기일	황아네스(현숙)
	연	김제이슨(재성)	김엘리사벳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김데레사
	연	심모니카	조마리아
	연	김분도	정요한(석준)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서데레사	박데레사
	생	김안나(화순) 건강	익명
	생	김원희 예비자	김데레사
8월 1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2구역원
8월 20일 수	연	유승룡	임안젤라
	생	전데레사(숙희)	박헬레나
8월 21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생	조에드워드(용수)	유리디아
8월 22일 금	생	김도미달라(경수)	전수산나
8월 23일 토	생	본당공동체의일치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9	206	-	295
헌금	\$648	\$1,201	-	\$1,849

< 교무금 > \$4,490

이경섭(8) 조관식(8) 김원덕(5-8) 조상희(8-9)
 김관숙(8) 팽현팔(8-9) 이병열(8) 최순일(8)
 정애리(5) 양우선(7-8) 엄철기(5-8) 김명환(7-9)
 이욱경(7-9) 심연자(3-8) 이선희(8) 추혜성(7-8)
 구창희(4-8) 한치용(6-7)

< 성소후원금 >

이선희(8-9)

< Bishop's Appeal >

이경섭(1-12)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한서연 수산나/박호영 헬레나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7일 교중미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사봉헌을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 사무실

◆ 장학금 수여식 : 오늘 교중미사 중  
장학금 수혜자 : 최민우 대건안드레아, 한승희 엘리사벳  
\*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수상자 : 정송이 비비안나

◆ 약정하신 2014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금주는 없습니다.  
\* 구역장회의 : 8월 2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레지오 야유회 : 8월 2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Robert Pool, Robert Recreation Area  
\* 프란치스코모임 : 8월 2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북가주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에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성경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2:00 - 3:00  
일정 : 미사와 친교, 가톨릭성서모임 소개  
시작미사 :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  
장소 : 오클랜드 성당  
문의 : Scooter Chung 925-200-7046

◆ 북가주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그룹 봉사자교육  
일시 : 8/24일(일), 9/7일(일), 9/14일(일), 9/21일(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센터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참가비 : 5불(교재비)  
신청 마감 : 8월 17일  
신청 및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방효익 신부님 여름 특강  
일시 : 8월 31일(주일) 오후 1시 - 3시 15분  
주제 : 공동체와 신앙생활  
준비물 : 성경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식사가 제공됩니다.

◆ SF 성마이클 성당 청소년 기금마련 골프대회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시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문의 : 정승식 요한보스코 415-203-0412

| 8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1-12장        |
|---------|--------------|---------------------|
| 2 구역    | 8월23일(토) 6시  | 엄성섭 시몬 덕            |
| 4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종규 미카엘 덕           |
| 5 구역    | 8월24일(일) 10시 | Lake Chabot, Willow |
| 6 구역    | 8월30일(토) 1시  | Tillman Park        |
| 7-2구역   | 8월17일(일)미사후  | Lake Chabot         |
| 9 구역    | 8월23일(토) 6시  | 이경섭 요셉 덕            |
| 10 구역   | 8월23일(토) 5시  | Ross Moore Park     |

◆ 북가주 성령대회 강의 CD 및 책 예약 판매  
접수 : 친교실 \* 강의 CD : \$10(CD 3장)  
책 : '천금 말씨' 와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의 10가지'  
(차동엽 지음) 각 \$20  
\* 수익금 전액은 본당 발전을 위하여 쓰입니다.

◆ 주일학교 등록 안내(개강 : 8월 31일)  
등록비 : 1인 \$30, 2인 \$50 \* 접수 : 친교실

◆ 성물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연도 및 장례미사 안내  
8월 13일 이주황 요한 형제님의 어머니이신 이영순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연도 :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  
문상예식 : 8월 18일(월) 저녁 8시  
장례미사 : 8월 19일(화) 오전 10시

◆ 전례성가대 수련회  
일시 : 8월 22일 ~ 24일 \* 장소 : Point Reyes  
주제 : 폐제성가와 함께하는 렉시오 디비나  
\* 다음주 24일 교중미사 때는 전례성가대 수련회 관계로 성가대가 없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헬레나(8/18) : 백승화, 박호영, 채용분, 문혜원, 유근아, 한현자  
\* 베르나르도(8/20) : 류현욱  
\* 비오(8/21) : 윤장익, 이기하, 장재용  
\* 피델리스(8/21) : 신병석  
\* 로사(8/23) : 이옥경, 김은수

안국학교 소식

- 개강 : 9월 6일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